# “맑고 향기로운 삶,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길상사 일요가족법회**

**혜능 스님(울산 람림학당 주지)**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가 2월 16일 경내 설법전에서 람림학당 주지 혜능 스님을 초청해 정기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했다. 길상사는 한 달에 한 번 일요가족법회에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법석에 오른 혜능 스님은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를 열반과 계행을 이루는 삶으로 해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진해야 한다는 법문을 설했다. 이날 법문 내용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리=김민재 기자



울산 람림학당 주지 혜능 스님이 2월 16일 길상사 일요가족법회에서 법문을 설하고 있다.

길상사하면 법정 스님께서 크게 홍포하셨던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길상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저는 늘 기억하고 있고 그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을 참 좋아 합니다. 그럼 ‘맑다’는 무엇이고, ‘향기로움’은 무엇일까요. 맑음은 모든 번뇌의 때가 없어진 상태가 청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도어로 니르바나(nirvana), ‘열반(涅槃)’이라고도 하지요. 맑음의 경지는 곧 ‘열반’을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반을 ‘죽음’으로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큰스님이나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죽는다고 표현 안합니다.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열반이 ‘죽음’을 뜻하긴 했지만, 부처님이 이 용어를 쓰시면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번뇌와 생사’가 죽었고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열반의 경지는 어떠한 번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맑음은 단순히 더러움이나 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의 별명이 ‘위숫디(Visuddhi)’라 합니다. 한자로 하면 청정(淸淨)이라 합니다. 그 청정에 이르는 ‘길’은 뭐라고 할까요. 막가(magga)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청정·열반에 이르는 길, 〈청정도론(Visuddhimagga)〉라고 합니다. 유명한 빠알리 논서죠.

일상으로 보게 되면 마음속에, 집안에, 사회에 ‘재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나에게, 가정에 재난이 없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소재(消災)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면 세 가지 재난과 여덟가지의 어려움, 즉 ‘삼재팔난(三災八難)’을 걱정합니다. 이런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사회에 삼재와 팔난이 없고, 없길 바라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없는 맑고 청정한 삶을 살자는 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럼 ‘향기로움’은 무엇일까요? ‘향기롭다’는 바로 계행(戒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게 되면 향기가 나게 되는데, 이를 계향(戒香)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 제일 먼저 ‘계를 지키는 맑은 향’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선정의 향(定香), 지혜의 향(慧香), 해탈의 향(解脫香), 해탈지견의 향을 올리는 ‘오분향례(五分香禮)’를 하죠.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에게 어떠한 번뇌, 슬픔, 비탄, 고통도 없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를 지킴으로써 자신과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막연히 ‘맑고 향기롭게 살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깥에서 산만해지고 게을러질 때마다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위안이 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런 수승한 도량에 불자님들이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럼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대신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 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성불하시고 고향인 가필라국에 방문합니다. 부처님의 아내이자, 라훌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가 그 소식을 듣고 8~10살 되는 라훌라에게 “부처님이 너의 아버지이니,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하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훌라는 부처님 앞에 서더니 유산을 달라고 곧이곧대로 행동합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걸식을 하러 나가십니다. 라훌라는 발우를 들고 부처님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를 시켜 라훌라를 출가시킵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열반’ 향기는 ‘계행’ 의미**
**라훌라 일화처럼 法은 상속 안 돼**
**“스스로 수행해야만 성취하는 것”**

유산을 받으러 갔는데, 달라는 유산은 안 주시고 라훌라 머리를 깎이고 출가시켜버려요. 출가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문(沙門)’ 혹은 비구라 합니다. 여자는 비구니라 하고요. 비구는 ‘걸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걸식은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해요. 부처님은 왕족이었습니다. 라훌라도 당연히 왕족이죠. 하지만 이런 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귀족, 왕족 출신의, 그 누가 출가했더라도 걸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훌라도 마찬가지예요. 라훌라가 먹을 밥을 부처님이 얻어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공양시간이 되니까 걸식하러 스스로 나가십니다. 수보리 존자나 제자들이 대신 걸식 해주지 않습니다.

라훌라도 본인의 생계, 걸식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라훌라는 무슨 생각을 했기에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라훌라는 속으로 ‘나도 아버지 세존처럼 잘생겼다. 부처님의 모습은 아름답다. 나도 그럴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갖춘 원만한 분이니까 아들인 자기도 아름답고 원만할 것이라고 착각한거죠. 32상 80종호부터 짚어봅시다.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32종 80종호를 갖춘 사람이 부처님이냐고 여쭤보죠. 32상 80종호를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 두 명 있습니다. 전륜성왕과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전륜성왕이 부처님이냐고 되묻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 말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외모는 자기 것입니다. 생김새가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이어 부처님은 라훌라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라훌라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라훌라여, 어떠한 물질(色)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올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물질만 그럴까요? 느낌(受), 지각(想), 형성(行), 의식(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이든, 거칠건 미세하건, 멀리건 가까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의 자만을 깨뜨려 번뇌로부터 건져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원만하고 아름다우면 부처님이 원만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라훌라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유산은, 진리의 법(法)은 상속되는 것이 아닌 거죠. “나는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신 길상사에 다니고 있으니, 그냥 있어도 맑고 향기롭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수행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보면 한 천신이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생사가 없는 그 세계의 끝에 도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세상의 끝, 그 세계에는 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 단신의 이 몸 안에 세계의 발생,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 그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친다”고 답합니다.

천신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천신의 전생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끝에 갈려고 했어요. 화살 같은 속도로 걸어도 걸어도 도달할 수 없었어요. 왤까요? 그 세계는 바깥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걸어서 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는 물질의 세계, 기세간, 바깥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우주, 바깥세계는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온, 12처 18계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자기의 몸과 마음 내 괴로움의 생성,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부처님은 설하십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괴로움의 끝을 찾으세요. 물론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당면하고 있는 슬픔, 고통, 근심, 불안, 절망이 없어지는, 즉 ‘고(苦)’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고통, 재난이 없어진 상태를 맑음과 향기로움이라 했습니다. 한자로 하면 그 상태를 ‘길상(吉祥)’이라 합니다. ‘길상’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맑음과 향기로움을, 소재와 길상을 수행하고 정진해서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길상을 성취하기 위해 삼보에 귀의하고 불교를 믿고 공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